



# 구석구석 95%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95%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따뜻한 나눔온도 달성 현장



김경아, '산마을에는 봄이 오는데.'



2023년 모금금액  
**8,305억**

홈페이지 가기

2023년 지원금액 **7,446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아동 / 청소년 1,719억	노인 1,010억	장애인 486억	여성 / 다문화 379억	위기가정 1,787억	지역사회 1,792억	해외 / 북한 273억	
사업 분야	기초생계 3,882억	교육 / 지원 939억	주거 / 환경 615억	보건 / 의료 450억	심리 / 정서 382억	사회적 돌봄 강화 755억	소통 / 참여 확대 240억	문화격차 해소 183억

사랑의열매 

2024  
**04**



사랑의열매 웹진바로가기





어린이를 위한 나눔놀이터

#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참여형 체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에 많은 어린이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나눔을 배우고 체험해요



1 ZONE

나눔의 개념, 가치를 배우는 나눔의 이해



2 ZONE

재미있는 미로를 통과하며 나눔 유형을 알아보는 나눔 미로



3 ZONE

우리 조상의 생활 속 나눔 지혜를 배우는 전통 속 나눔문화



6 ZONE

나눔을 통해 달라지는 변화를 소개하는 나눔의 힘



5 ZONE

장애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체험관



4 ZONE

나눔에 쉽게 다가갈수록 다양한 나눔을 체험하는 나눔 종류



책과 나눔 온도계로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나눔 책방, 나눔 온도계

## 견학안내

이용 대상 아동·청소년, 일반 시민(개인 및 단체) 이용 시간 월~목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견학시간 회당 약 40분 소요(단체 20명 내외 기준) 비용 무료

위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 별관 나눔문화센터 1층 나눔체험관

견학신청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문의 나눔체험관 담당자 02-6262-3034

함께 열매

## 독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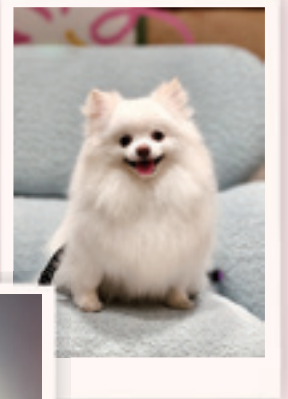
●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개해주세요. 선정된 세 분께는 보내주신 사진을 스마트폰 그림톡으로 만들어 선물로 드립니다. 사랑의열매와 관련 있는 사진을 보내면 그림톡 제작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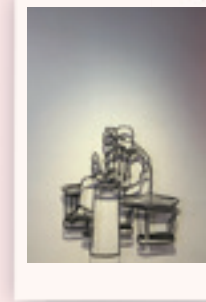


**웃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올해로 여섯 살이 된 여동생은 언제나 활짝 웃어줍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힐링 그 잡채사. -엄상홍



**엄마의 참쌀호빵만두 서원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제길 제길 사랑해! -김예지



**연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우연히 찍은 사진, 사랑하는 남자 친구가 생각이 나서 더 마음에 듭니다!! -박민정

## 참여 방법



1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2

사진을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응모하거나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로 보낸다.



매달 20일까지 보내면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 그림톡 제작에 선정된 사진은 '함께 열매' 코너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사랑의열매



○ 김경아, '산마을에는 봄이 오는데...'  
45.5×37.9cm  
acrylic on paper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4년 4월 / 통권 20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표지 이야기  
꿈꾸는 행복을 그리는 김경아 작가

06 나눔 여행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무안·함평

12 모두의 나눔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기쁨

18 내 인생의 한마디  
세종 아너 31호  
세종맘카페 정연숙 대표

22 소중한 진심  
결혼식 축의금 기부하며  
나눔의 가정으로 탄생한  
강석영·김채원 부부

2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8 기부트렌드  
기부트렌드 2024 컨퍼런스

30 나눔 이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그 후 1년

32 문화 레터  
주말엔 문화생활

34 착한기업  
인류에 공헌하고자 헌신해 온  
세정그룹

38 다른 그림 찾기

39 전국 열매 이야기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  
강원·세종

52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4 4월 전국 지회 뉴스

64 나눔 만화



#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빛을 듭니다”

비록 움직임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꿈꾸는 세상만큼은 한없이 넓고 크다.  
지나간 순간의 행복했던 추억,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 그리고 그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김경아 작가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 김경아

## 원발로 그려낸 작품 세계

어떤 질문에도 한참을 생각한 후 신중하게 답했다. 움직임이 여의치 않아 어눌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한 단어 한 단어 고르고 고른 차분한 어휘들은 김경아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보다시피 저는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곤 해요. <사랑의열매> 표지 작품이 특히 그랬어요. 산마늘에 봄이 오는 풍경을 떠올려봤는데... 상상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비록 작업실에서만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며 충분히 그 산마늘의 봄을 즐겼답니다.”

송파구 구민회관 내 화실에서 작업 중인 김경아 작가는 <사랑의열매> 4월호 표지로 선정된 ‘산마늘에는 봄이 오는데’를 설명하며 다시금 그 풍경을 떠올리는 듯했다. 벚꽃 갈기도 하고 복사꽃 갈기도 한 화사한 꽃분홍색 산마늘은 일렁이는 4월의 초봄을 표현하기에 그만이었다. 파스텔 톤의 전체적 색감은 작가의 순수한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이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려낸 마을이기 때문일까? 꽃나무 사이로 김경아 작가가 보이는 것 같았다.

“<사랑의열매> 표지로 제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기뻐요. 최근 작업을 하는 원발을 다쳐서 한 달 정도 그림을 못 그렸거든요. 답답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 PROFILE

세한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23 장애인 날 기념 전시 <그림 봄길전>

2023 선사랑 정기전

2023 <설레는 동행전> 출품 원서

2022 한국장애인미술협회전

2022 선사랑 정기전

2021 장애인아트페어

## 수고했어, 경아야!

김경아 작가는 구족 화가로서 원발로 그림을 그린다. 한 살 무렵 열병으로 장애가 생겨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지만, 원발만큼은 자유롭게 때문이다. 어린 시절 원발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를 화가의 길로 이끌어 미술대학까지 진학했다. 처음 시작은 동양화였지만, 서양화로 전향하며 작가로서 표현의 폭을 넓혔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가장 기뻐던 순간은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에서 입상했을 때였어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는 대회였기 때문에 기분이 남달랐죠.”

김경아 작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첫 개인전을 손꼽았다. 상을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고 했다. 떨리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면서 전시된 작품들이 주는 성취감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다.

“저절로 ‘경아야, 수고했다’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평생 전업으로 그림을 그려온 김경아 작가의 꿈은 소박했다. 그저 계속 그림을 그리며 개인전을 이어나가는 것. 지속적으로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행복한 순간을 그려내는 김경아 작가다. 🍀



#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 무안·함평

남도의 드넓은 평야와 산,  
바다를 두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및 즐길 거리  
가득한 사계절 힐링의 고장.  
푸릇 푸릇 봄이 가득한 무안과  
함평에서 4월을 만끽해보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무안군·함평군



### 함평 대축제 나비

나비를 소재로 한 공연, 체험, 전시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 축제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비를 관찰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나비 날리기 행사와 꽃·나비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작품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의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관들은 단연 최고다. 다육식물관, 친환경농업관, 수생식물관, 자연생태관 등 식물 전시관과 황금박쥐전시관 등이 더욱 화려하게 새 단장되어 축제장 내 볼거리·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올해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26일부터 11일간 진행된다.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수호리 1153-1\)](#)



### 회산백련지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다. 둘레만 3km에 달하며, 면적은 31만 3,313㎡로 2001년 동양 최대 백련 서식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저수지였으나,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자 인근 덕애마을 주민들이 백련 12구를 구해 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주민들은 백련을 심은 날 밤 꿈에 하늘에서 학 12마리가 내려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좋은 징조라 여겨 정성껏 가꾸기 시작해 오늘의 백련 자생지가 되었다고 전한다. 무안 회산백련지의 연은 다른 곳과 달리 꽃이 가장 늦게, 오래 피며 꽃과 잎 그리고 연근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 333](#)



## 고막천 석교

함평군과 나주시 경계를 흐르는 고막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다. 고려 원종 14년(1273) 무안 법천사의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널다리 형식으로 원래의 위치에 원형을 간직하고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유일의 다리다. 목조 가구의 결구 수법인 주두의 가구법을 택해 급류에도 휩쓸려가지 않고, 홍수에도 견뎌온 튼튼한 기초 구조를 갖춘 석교는 교량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다.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 황금박쥐전시관

제작 당시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슈가 된 함평의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 현재는 140억 원을 호가하며 함평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멸종 위기 희귀 동물인 황금박쥐가 함평에 서식하는 점에 착안해 박쥐의 생태 체험 및 자연 생태 보존과 야생 희귀 동물 보존 등을 알리기 위해 조성했다. 순금 162kg의 황금박쥐 조형물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함평만의 볼거리다.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수호리, 엑스포공원사업소)



## 초의선사탄생지

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다도의 성지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태어난 초의 대선사는 조선 후기 침체된 당시 불교계에 선풍을 일으킨 선승(禪僧)으로, 명맥만 유지해오던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이다. 특히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다인들과 교류하며 차와 사상의 만남으로써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강진에서 다산초당을 짓고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과의 만남은 젊은 시절 초의 스님이 다도의 정수를 깊이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함평나비카페**

함평을 대표하는 나비를 주 테마로, 인테리어와 조명이 나비로 장식된 유명한 카페다. 모든 음료와 메뉴에 스토리를 더하고, 나비를 데코한 비주얼은 마치 동화 속 같다. 함평의 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딸기 음료와 핸드픽 커피가 유명하다. 드넓은 논 뷰 입구에서 맞아 주는 애완용 거위 가족은 카페의 또 다른 명물.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오일장에서 가까우니 꼭 둘러보자.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692 함평나비카페 ☎ 061-322-0692



**토담골 한우곰탕**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토담골은 현지인 추천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국내 곰탕 전문점 중 화학조미료 없이 한우와 식재료만으로 곰탕을 만드는 유일한 곳으로, 먹거리 탐사 프로그램에 선정돼 더욱 유명해졌다. 메뉴는 수육과 곰탕, 특히 진한 국물에 잘 익은 묵은지의 조화가 그야말로 기막히다. 곰탕은 전국 배송도 가능하다.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1길 32-5 ☎ 061-454-7733



**유생촌 목포남약점**

뷔페 스타일의 돈가스 전문점으로, 샐러드 바까지 더해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 갓 튀겨낸 돈가스와 치킨가스, 생선가스는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기 충분하다. 이 밖에 신선한 각종 샐러드와 피자, 불고기, 닭강정 등 요리도 다양해 인기 만점이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3로 50 신우메디칼센터 2층 ☎ 061-283-7227



**전주식당**

함평군 1호 백년가게에 빛나는 전주식당은 1980년부터 함평한우 생고기와 육회를 주메뉴로 내며, 한우·낙지·홍어 비빔밥 전문점이다. 3대에 걸친 전통의 맛은 변함없이 찾는 이들을 감동시키기 충분하다. 당일 도축한 한정된 함평한우만 사용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일찌감치 방문해보자. 🍴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22 ☎ 061-322-2342





#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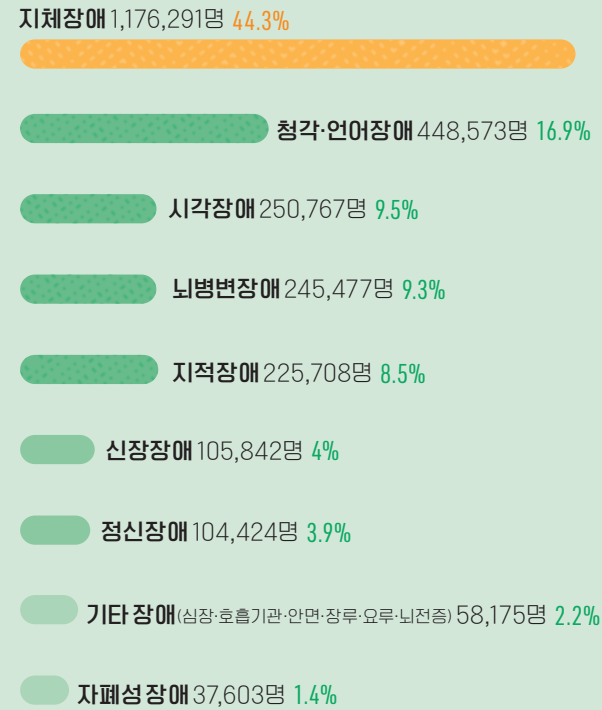
우리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이제는 거의 일상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비장애인에겐 사소한 일이 장애인에겐 특별하거나 어렵기 때문.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누구나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각자 나눔 기관 일러스트: 명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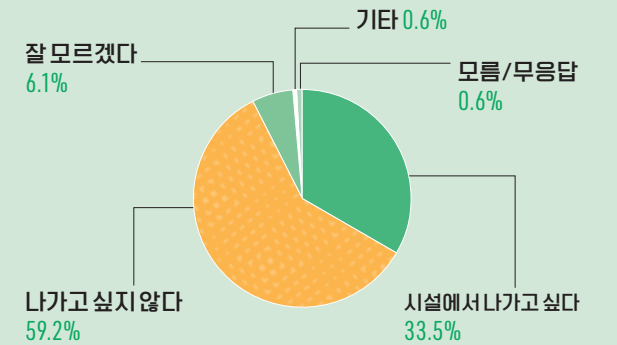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오늘

### 전국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 보건복지부, 2022년 등록 장애인 현황(2023년 5월 기준)

### 장애 유형별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 비율



###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 (복수 응답)

- 1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69.5%
- 2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21.9%
- 3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14.7%
- 4 가족들이 이곳에 계속 있기를 원해서 9.7%
- 5 함께 살 가족이 없거나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4.8%
- 6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1%
- 7 모름/무응답 3.1%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육구 실태조사'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 응답

- 1위 연금 수당 지원 서비스 31.3%
- 2위 돌봄 지원 서비스 16.8%
- 3위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 16.5%

#### 비장애인 응답

- 1위 돌봄 지원 서비스 24.9%
- 2위 일자리 자립 자금 지원 서비스 17.6%
- 3위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 16.2%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 지적장애인의 심신안정을 위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1 풍선 공예 프로그램 활동 중인 참여자들 2 한 달에 한 번 진행한 생일잔치 3 참여자 58명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사진은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 동심원은 지적장애인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주 시설로, 여전히 감염 취약 시설로 분류돼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다. 반복적인 원내 생활로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증가했다. 이에 한국인삼공사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58명의 참여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서 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술 활동, 음식 만들기, 생일잔치 외에도 여성 참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피부 관리 및 네일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MINI INTERVIEW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참여자들은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이 향상되는 등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불안감과 공격적 행동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특히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심원 김경일 과장

###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

#### 건강 챌린지

#### MINI INTERVIEW



“발달장애인 특성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어떤 활동보다 시급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해 소규모 시설에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시점에 LS그룹과 사랑의열매 지원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주간보호시설 작은나루 김은정 사회복지사



● 발달장애인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섭식에 대한 욕구 증가로 과체중 이상 비만이 53%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진행돼야 하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주간보호시설 작은나루는 LS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개인 맞춤형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인 감각통합, 랄랄라 댄스, 요가 & 뉴 스포츠까지 참여자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개월마다 체중·체지방·혈압 등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특히 감각 통합 프로그램은 그룹별 수업임에도 참여자별 일대일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며 참여자 특성에 따른 개별 재활 활동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재활 범위를 넓혔다.



1, 2 참여자 특성에 맞춰 일대일로 지원하는 감각 통합 프로그램 3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참여자 모두 즐거워하는 랄랄라 댄스 프로그램 4 유연성과 균형 감각은 물론 집중력까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요가 프로그램



## 시설 퇴소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다같이 함께하면! '다함'



1, 2 자립생활주택 입주인 및 퇴거민이 여행 및 문화 예술 활동 일정을 계획·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개별 맞춤 활동 지원. 사진은 참여자가 사전에 각 지역 교통편, 숙박 등을 직접 알아보고 계획해 떠난 여행 활동 모습

●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2021)’을 통해 2025년부터 연간 740여 명을 지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22년부터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참여자를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거주 체험 및 자립 생활 캠프를 실시하고,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에게는 관계 단절과 무기력 등 회복 과정을 위한 심리 상담, 개별 맞춤의 사소통 교육, 건강 지원, 여행 활동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에게는 시설 퇴소 선후배 멘토링, 자조 모임을 통해 동료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 MINI INTERVIEW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이다은 사회복지사



####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협동조합 기관들과 연계해 시설 퇴소 당사자들에게 가사 및 식생활,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 당사자와 시민 옹호인이 일대일 매칭 활동을 통해 당사자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물적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원 주체들의 결합을 통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둔 부분이 있다면요?

복지관뿐 아니라 지원주택센터, 자립생활센터가 함께하는 컨소시엄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지난해 5월 1차 연도 사업 중 진행한 온라인 공문장 연대의 힘 모습

에 정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사업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별 맞춤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입주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개별 맞춤 활동 지원을 통해 부산·여수·제주도 등 전국 지역을 탐방하는 여행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전세 주택으로 자립했습니다. 활동을 계기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본 사업에서 참여자를 밀접하게 지원하는 인력을 ‘조력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시설 퇴소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열매가 넓은 의미에서 조력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웃 돕는 착한 오지랖이 세종맘카페의 시작이었죠”

맘카페는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로 꼽힌다. 현지인의 알짜배기 정보부터 임신, 육아, 출산, 교육 등 아이를 키우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맘카페는 여기에 '나눔'이라는 특별함을 더해 눈길을 끈다. 글강보라 사진서법세

세종시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모인 세종맘카페(세종맘들의 행복한 이야기방)는 대표적 지역 커뮤니티로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맘카페를 이끄는 정연숙 대표(닉네임: 파란나라)는 '착한 오지랖'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렇듯 곤경에 처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밥상을 펴고 보따리를 푸는 스타일이다. 세종맘카페 회원들과 세종시 나눔리더스클럽 2호로 가입하며 공동 기부를 이어가던 정연숙 대표는 체계적인 나눔을 위해 세종아너31호로 가입했다. 2024년 새해 첫 아너 회원으로 청룡의 해를 의미 있게 시작한 것이다.

## 생활 정보로 가득한 우리 동네 사랑방

정연숙 대표는 세종맘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울증 극복이었다고 말한다.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전에서 이사 왔는데 사람도 없고 슈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웃음) 눈발 사이에 아파트만 우뚝 선 셈이었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맛있는 겨울방학은 가혹했다. 정연숙 대표는 당시 초등학교생 아들 둘을 집에 두고 출퇴근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집 주변이 모두 공사 중이라 아이들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집을 나서곤 했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 무렵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 불빛을 보고 ‘저 집에는 누가 살까? 저 집에 사는 아기 엄마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우울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 무렵 남편이 지역 맘카페 개설을 권유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먼저 사람을 모으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2012년 2월, 이사온 지 두 달 만에 세종맘카페를 개설했다. 이후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종의 모습을 전하는 열혈 취재원으로 변신했다.



세종아너 31호  
세종맘카페 정연숙 대표



“처음에는 ‘여기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하며 일반적인 글을 올렸죠. 그랬더니 예비 입주자 엄마들이 ‘6개월 뒤에 입주할 예정인데, OO아파트 OO동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주변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단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웃음)”

그 뒤로 댓글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주말마다 자전거 바구니에 카메라를 싣고 세종 곳곳을 누볐다. 부락대로 신축 아파트 29층에 올라 주변 모습을 담고, 공사 진척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게 정연숙 대표에게 도움을 받은 엄마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고, 먼저 도움받은 엄마들이 다른 엄마에게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형식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었다. 세종맘카페는 그렇게 지역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 착한 오지랴를 바탕으로 성장한 세종맘카페

정연숙 대표는 세종맘들이 단순 친목을 넘어 지역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위해 3년 내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모임 단체인 나눔리더스클럽 세종 2호로 가입을 마쳤다. 정연숙 대표가 세종맘카페의 이름으로 시행한 첫 번째 기부는 플리마켓 수익금이었다.

“외지에서 이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신도시니까 지역 행사가 없었죠. 인근 대전맘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물품이나 아이들 육아용품을 플리마켓에서 교류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며 의견을 모으고 행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세종맘들이 가지고 나온 물품에 기부받은 헌 옷을 손질해 판매했다. 행사답게 커다란 술을 빌려 어묵 국물을 만들고, 솜씨를 발휘해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했다.

“장사가 처음이라 어묵 국물 만들 때도 식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어요. 꽃게, 다시마, 무, 고추... 모두 국산으로요.(웃음) 이윤을 남기겠다는 마인드보다 맛있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열심이였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진하고 시원한 어묵 국물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플리마켓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연숙 대표는 수익금 68만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모두의 돈이니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생겨 그들의 화상 치료비에 보냈죠.”

정연숙 대표의 착한 오지랴는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세종맘카페에 ‘어울림시장’이라는 코너를 별도 개설해 농산물과 가공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여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 것이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하는 김장 김치와 쌀은 1사1촌 협약을 맺은 마을의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연숙 대표의 착한 오지랴가 지역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 엄마의 마음으로 세종시 아이들을 품다

정연숙 대표의 선한 영향력은 ‘철조망 사고’로 불리는 안타까운 사연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2017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음식물 수거 차량에 걸려 있던 군부대 철조망에 휘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서 넘어진 A군(당시 15세) 몸에 철조망이 감긴 채로 수 미터를 끌려가며 배와 다리는 물론 일반 장기까지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정연숙 대표는 학생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 투명한 회계 관리가 공동 나눔의 원동력

정연숙 대표가 회원들과 나눔 활동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투명한 회계 관리다.

“철조망 사고 모금 운동을 할 때 제 개인 계좌를 사용했는데, 계좌에 있던 돈을 0원으로 만들고 시작했어요. 모금이 종료된 상태에서

는 0원부터 마지막 입금자까지 모두 캡처해 공개했죠. 모금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나눔과 투명한 회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연숙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사랑의열매였다. ‘철조망 사고’ 피해 학생 모금액 전달도 사랑의열매를 통했다. 모금액 전달부터 치료비, 교육비 등 오랜 시간 전문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공동의 수익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정연숙 대표의 철칙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제안과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나눔은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 같아요. 길 가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방한복 수십 벌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교복을 마련하기 힘들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사연을 듣고 스무 명의 아이에게 교복을 맞춰준 적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나눔 로드맵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전문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나눔을 위해 세종 아너31호로 가입하며 청룡의 해를 시작한 정연숙 대표는 세종맘카페 회원들을 떠올린다.

“아너 회원 가입 기사를 보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 하고 놀라는 오랜 회원들의 연락 덕분에 일에 열심이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죠. 그 덕분에 ‘잘 살아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연숙 대표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불가 용어인 ‘시절 인연’을 떠올린다. 수많은 시절 인연이 있었기에 큰 행사들도 서슴없이 진행했으리라. 그래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날이다. 정연숙 대표의 선행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으로! ❀



정연숙 대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나눔 DNA를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꼽는다. 생활 속에서 배우고 익힌 나눔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등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혼식 축의금 기부하며  
나눔의 가정으로 탄생한  
강석영·김채원 부부

#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선물받았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여기에 기부라는 더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더한 이들이 있다. 나눔리더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로 가정을 꾸린 강석영·김채원 부부다.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본인 제공



축의금 기부를 통해 제주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145호·146호에 이름을 올린 강석영·김채원 부부



기부를 통해 서로 더 단단해졌다고 말하는 두 사람. 사진은 지난해 11월 결혼식 모습

“나눔이란 어두운 사회를  
흰히 밝혀줄 등불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곳은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환한 미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불씨를 더욱 활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 강석영·김채원 부부

## 나눔리더 신혼부부 탄생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결혼식 축의금을 기부하며 부부가 나란히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인 결혼을 나눔으로 장식하며 더없이 눈부신 순간을 만들어낸 강석영·김채원 부부다.

“축의금은 저희가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잠시 빌린 돈이라는 걸 결혼식을 치르며 통감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고마움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나마 축의금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 강석영 씨는 <사랑의열매> 회보에 자신들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크나큰 영광이라면, 훌륭한 분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쑥스러워했다. 2021년 회사 선후배로 만난 두 사람은 처음부터 “큐피드가 화살을 쏘고 간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강한 운명을 느꼈다고 했다. 연애 기간이 곧 결혼 준비 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웃는다. 특히,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경제관이 잘 맞아서 기부 역시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결정할 수 있었다.

“우연히 김부식 선생의 <삼국사기>에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문구를 접하고, 우리 가정의 지향점으로 삼아보자 다짐했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사치하기보다는 절약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서로 고민하며 살자 했거든요.”

두 사람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기부를 했으니 ‘검이불루 화이불치’한 삶을 완벽하게 시작한 셈이다.

## 부부를 강하게 만든 나눔

두 사람의 기부 뒤에는 양가 부모님의 지지도 있었다. 양가 모두 늘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온 가정 속에서 두 사람의 선택에 “자식 하나 잘 키웠다”며 응원해주었기 때문이다. “저희 둘 다 이번 기부가 처음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그럼에도 시적이 반이랑 이웃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이전보다 더 생긴 것 같아요.”

기부를 통해 용기가 더 생긴 것 같다고 말하는 강석영·김채원 부부의 말은 꽤나 여운이 길게 남았다. 신랑 강석영 씨는 “행복은 마치 나비와 같아 좇으면 저 멀리 달아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마 당신 어깨 위에 살포시 앉을 것이다”는 미국의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의 말을 인용하며 재물을 좇기보다는 주변의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가정을 꿈꾼다고 했다. 그러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란 믿음이 있다.

“결혼식 사회를 맡아준 선배가 오는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아마 저희 부부를 시작으로 축의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나눔수록 배가된다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나눔의 아름다운 용기를 내어보라며 격려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새봄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는 강석영·김채원 부부의 소중한 진심이 널리 퍼져나가길 응원해본다.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센터 아트 센터를  
방문한 2023년 연수 참가팀 '시그마'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청년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장애청년드림팀  
연수 참가자들



기술 발전을 통한  
장애인 정보  
접근권과 자립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의 이공계  
진출이 활발한  
미국의 사례를  
탐구하기 위해  
떠난 시그마팀

## 국내 최초 장애 청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

터닝 포인트, 열쇠, 도전, 가능성, 모험, 삶의 변곡점, 비밀의 화원, 일상의 활력소, 교두보, 가리 등 좀처럼 공통점을 찾기 힘든 단어들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바로 장애청년드림팀 참가자들이 “나에게 드림팀이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찾은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울고 웃고 때론 좌절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6개국 이 아닌 무려 6대륙을 누빈 청년들의 도전이 감동적인 해외 연수 사업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장애청년드림팀 청년이 되다(장애청년드림팀)'를 소개한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신한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장애 청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유일무이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주도적 연수 활동 및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장애인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 주류화를 주도하는 청년 리더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정부가 장애 이슈에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인 1954년에 국내 최초로 민간 차원의 장애인 복지를 시작한 단체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권리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70년 역사의 유서 깊은 단체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룬다.





2019년 장애청년드림팀 15주년 기념식

미국 록펠러 센터를 방문한 2023년 연수 참가팀 '임프티'



**편견 넘어 지구 31.8바퀴 대장정**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장애청년드림팀은 그동안 장애 청년은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장애 인식을 깨뜨리는 데 크게 일조했다. 장애 청년의 해외 도전에 대한 편견을 넘어 1,038명의 청년이 37개국, 총 135만 824km, 지구 31.8바퀴를 도는 대장정의 기록이 바로 그 역사이자 증거다. 주변의 시선으로 도전하기 어려웠던 사막을 횡단하고 오지를 탐사하며 가능성을 증명해낸 장애청년드림팀은 이후 킬리만자로 정상 등반,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영역을 넓히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에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005년 첫 번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1,038명(2023년 기준)의 청년이 참여해 37개국을 도는 대장정을 통해 ●변호사 ●공무원 ●교사 ●아나운서 ●유튜버 ●장애 인식개선 강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 주류화를 주도하며 청년에서 우리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성장시켰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장애청년드림팀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현 목표에 기여하며 청년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드림팀, 우리 사회 희망 메신저**

지난 20년간 장애청년드림팀은 아태 장애 청년 국내 캠프, 국제 협력 기획 테마, 청년들의 도전 테마 연수, 국내 NGO 및 바리스타 인턴십,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개척해나가는 청년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왔다. 2024년 19기 참가자를 모집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은 '포괄적

접근권'을 주제로 연수에 나선다. 의사소통부터 교육, 노동, 건강,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24년 연수는 '기획연수'와 '자유연수' 두 가지로 진행되던 이전과 달리 기획연수와 자유연수 I, II 세 가지로 확대해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디지털 포용을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연수에 이어 이번 기획연수는 국내 상황에 맞는 실적용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해당 연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팀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연수의 경우에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연수 계획부터 기관 및 인사 섭외, 현지 연수까지 자유로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전년과 동일하나 올해는 두 갈래로 나누어 지원자를 받는다.

'자유연수 I-인식의 전환'은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 6명으로 팀을 이루어 ●교육 ●이동 ●정책 ●주거 ●직업 등 사회 참여 분야에서 관심 있는 주제로 설정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대륙 중 8박 10일의 일정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다.

'자유연수 II-시선의 전환'은 청년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건강 ●예술 ●체육 등 일상생활 분야 중 경험해보고 싶은 콘텐츠로 5박 7일의 일정을 자유로이 기획해 신청한다. 자유연수를 통해서도 청년의 관점과 주체성, 자유로운 도전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장애청년드림팀을 지원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을 인용하며, 드림팀이 우리 사회의 상생과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6대륙을 누비며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의 다음 도전을 기다려본다. 🍀

MINI INTERVIEW

2023 장애청년드림팀 리더들에게 들어보는 연수 후기



임프티팀 리더 | 김남영(지체)

"이번 연수는 장애인 고용 문화에 대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엄청난 개인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유능하고 재미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나아가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다."



중장비팀 리더 | 주시현(비장애)

"출발점부터 다른 듯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마르부르크에서 볼 수 있던 배리어프리한 구조물들, 인터뷰를 통해 더 잘 알게 된 유관 기관들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독일에 가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다. 새로운 것을 많이 보면서 보다 열린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에일리홀팀 리더 | 임동준(시각)

"2015년에 스웨덴을 다녀온 후 드림팀의 매력에 빠져 수차례 도전, 두 번째로 다녀오게 됐다. 비장애인 친구와 자유연수를 기획하고 매일 신청서에 매달렸다. 주제 선정부터 해외 기관 연락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합격 전화를 받고 너무 좋아서 며칠 동안 함께 준비한 비장애인 친구와 계속 기쁨을 나누었을 정도다."



지영오팀 리더 | 송주영(청각)

"3D 그래픽과 연관된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연수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전시회와 체험 및 테마파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교육 기회가 적었던 3D 분야에서 개선할 점과 배울 점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 주목해야 할 나눔의 모든 것

# 기부트렌드 2024 컨퍼런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기부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올해의 기부 트렌드를 발표해왔다. 올해 역시 '기부트렌드 2024 컨퍼런스'를 개최해 비영리 기관 종사자 및 모금 관련 실무자와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부트렌드 2024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참고 박미희·노연희·이수현·한우재·이민영·유재윤, <기부트렌드 2024(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 조직)>, 이소노미아



(왼쪽부터) 기부트렌드 2024 컨퍼런스에 함께한 서울 사랑의열매 이윤나 팀장, 이병현 위촉연구원, 한국모금가협회 윤지현 전문회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연구위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우재 교수,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김누리 소장

## 기부, 지향성과 만나 정체성이 되다

- 이번 기부트렌드에서 연구진은 원하는 시기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기부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기부자의 등장을 주목했다. 이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고민하고,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한다는 것. 보여주기 식 기부로 시작했어도 점차 개인의 관심과 지향을 반영한 행위로 확장되며 기부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변화에 따라 '목적이 있는 후원'을 하고자 이슈와 시기, 규모, 기부처 등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부 포트폴리오 만들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 조직

-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체험, 소비를 아우르며 기부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지닌 다른 이들과 느슨한 연대를 통해 주도적으로 모금하기도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팔로워들이 함께하는 기부에서 기부자의 자기 주도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플루언서들은 기부를 위해 전시를 열고 굿즈를 만드는 등 주도적으로 판을 벌이고, 그 과정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그것을 본 팔로워들은 기부를 하나의 의미 있는 콘텐츠로 받아들이며 기부 방법과 내용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 뉴노멀 시대의 가볍게 오래가는 관계 만들기

-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모금 조직과 기부자 사이의 관계는 확실히 가볍고 느슨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즉각적인 모금 효율성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시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부를 바로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부자가 조직의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부자와 모금 조직의 관계를 '느슨한 관계'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 진정성이 전달되는 소통을 통해 느슨하지만, 오래가는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기술, 흥미롭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 새로운 플랫폼에서 기부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으나, 소규모 모금 조직에서는 기부자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NFT·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모금 전략에 반영했으나 법 제도 문제, 부분적으로만 활용되는 등 한계에 부딪혔다. 연구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이 가장 트렌디한 기부 방식으로 꼽은 건 키오스크 기부였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일회성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법이기 때문. 하지만 제작, 설치,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혔다. 연구진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현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SG 나 혼자 산다? 사회 공헌과 함께 해야 할 지속 가능 경영

- ESG(환경·사회·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은 사회 공헌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서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평가로 반영되고, 기업 경영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기업이 비영리 협력 사업에서 사회 공헌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ESG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 경영이 환경(E)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회(S)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다. 기업의 시선이 사회(S)로 이어질 때를 준비하는 비영리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가 잘하는 것을 강화하되, 기업 변화를 고려해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영리 조직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진격의 거인, 비영리의 지속을 흔들다

-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되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재단이 비영리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두 '거인'이 지속을 흔드는 가운데 비영리 조직의 존재 이유, 자율성, 독립성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이 두 거인이 비영리의 협력자인지 위협자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비영리의 본질적 업(業)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전했다. 비영리 조직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본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진단했다. 🌸



**전자책으로 만나는 <기부트렌드 2024>**  
그동안 자체적으로 발행한 기부트렌드 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선보였다. 출간 3주 만에 <기부트렌드 2024> 실물 도서는 품절되었다. 실물 도서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전자책으로 기부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전자책 플랫폼인 리디북스와 밀리의 서재에서 <기부트렌드 2024>를 검색하면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읽을 수 있다.



함께 모은 사랑으로 희망을 재건하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그 후 1년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대지진이 발생했다. 한순간 폐허로 변한 도시, 모든 걸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사랑과 힘을 모았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자 모두가 노력했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사랑의열매



2



1

1 기업, 미디어, NGO, 사랑의열매 등 다양한 주체가 자신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주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참석자들 3 사랑의열매와 국내 NGO 단체는 물론, 현지 파트너 기관 담당자까지 참석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그 후 1년'



3

## 정부부터 현지파트너까지 폭넓은 협력 사례 공유

● 지난 3월 6~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그 후 1년'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사랑의열매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대응에 참여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첫날인 6일에는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협력 사례를 짚어봤다. 또한 기업(아시아나항공), 미디어(MBC), NGO, 사랑의열매 등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다양한 주체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현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내 NGO 단체는 물론, 이들과 힘을 합쳐 일했던 현지 파트너 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해 사랑의열매의 긴급 지원·특별 모금으로 진행된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

●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자 5만 8,000여 명과 부상자 11만 9,300여 명이 발생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3만 개에 버금가는 심각한 피해였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발 빠르게 긴급 지원을 하는 한편, 2023년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모금을 진행해 135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튀르키예-시리아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7개 NGO 파트너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날 포럼에서 사랑의열매 사업 성과 개괄 발표를 맡은 KCOC 인도적지원부 장찬업 과장은 "사랑의열매 재원은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만큼 특별하다"며 "사랑의열매의 배려로 행정 절차 등이 간소화돼 7개 NGO 파트너는 현지 지원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랑의열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NGO는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긴급 지원과 특별 모금에 대한 의미를 되짚었다. ❀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주요 지원 사업

- **지파운데이션**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정수 처리 및 식수 접근성 개선 사업
- **컨설팅드와이드**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 긴급 필수 식량 배분 사업
- **함께하는 사랑발** 튀르키예 아디야만·말라티아 지역 이재민 임시 정착지에 보건·위생 시설 지원 및 생필품 물자 지원 사업
- **굿네이버스**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조기 복구 지원 사업(이재민 캠프 개촌, 공용 세탁 시설 설치, 아동 영양보충 식량 키트 제공 등)
- **초록우산**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긴급 급수 시설 복구 및 개인위생 증진 사업
- **월드비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 지진 피해 최취약 가구 대상 E-바우처 지원 사업
- **희망친구 기아대책**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재민 통합 지원 사업(식량 키트 제공, 임시 학교 건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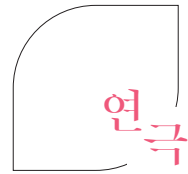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특별 모금 성금 135억 원을 모아 재난 복구에 힘을 보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이번 주엔 뭐 하지 주말엔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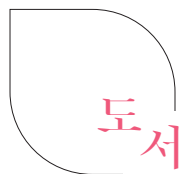
황금 같은 주말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뮤지컬부터  
전시, 책까지 취향껏 고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 글 이선희 사진각 제작사, (주)씨씨오씨, 사계절



## 엠. 버터플라이(M. Butterfly)

연극열전이 브랜드 론칭 20주년을 맞아 '연극열전 10'을 개최한다. 지난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담아 대표작 10편을 선보이는데, 첫 시작은 7년 만에 돌아온 연극 <엠. 버터플라이(M. Butterfly)>다. 1986년 중국 배우이자 스파이였던 여장남자 쉬 페이푸가 프랑스 외교관 버나드 브루시코를 속이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충격적인 실화에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차용해, 서양이 동양 특히 동양 여성에 대해 가진 편견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망까지 폭넓게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 초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흥행성과 작품성까지 인정받았으며, 국내에는 총 네 차례 관객들을 만나며 연극열전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3월 16일~5월 12일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120분  
₩ R석 7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5,000원



## 사이보그가 되다

첨단 기술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각기 보청기, 휠체어라는 테크놀로지와 밀접하게 결합해 살아온 소설가 김초엽과 작가이자 배우 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원영은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기술 유토피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대신 장애인의 신체와 감각이 기술과 결합해 새롭게 구성된 정체성, 그 고유한 경험을 과학기술과 미래 담론의 중심으로 과감하게 가져온다. 두 저자는 단지 손상을 보완하는 도구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 일부를 구성해 장애인을 확장된 존재, 세계 및 타자와 연결된 존재로 과학기술을 바라본다면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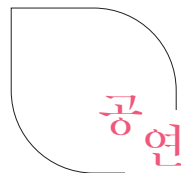
김초엽, 김원영 저, 사계절



## 폼페이 유물전 - 그대, 그곳에 있었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나폴리 국립 고고학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구성했다. 선명한 색채의 프레스코 벽화부터 거대한 조각상, 섬세한 청동 조각, 사람 캐스트 등 고고학자인 마리아루치아 자코가 직접 큐레이팅한 고대 유물 127점과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로 꾸몄다. 그 덕분에 유물전이 갖는 고전적 분위기와 세련된 현대 감각의 영상이 공존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는 크게 다섯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움에 매료된 고대 그리스 로마인의 생활 방식과 찬란한 문명을 느끼게 한다.

1월 13일~5월 6일 ▶ 더현대 서울 6층 ALT.1  
Ⓞ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월·일요일, 주말 및 공휴일은 30분 연장) ₩ 성인 2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 5,000원



## 뮤지컬 브론테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뮤지컬 <브론테>가 2년 만에 돌아왔다. 뮤지컬 <브론테>는 여자가 글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브론테 자매의 삶에서 출발해 상상을 더해 만든 작품이다. 브론테 자매 중 살아서 인정받은 유일한 작가로 <제인 에어>, <빌레트> 등의 대표작을 남긴 샬럿, 대표작 <폭풍의 언덕>처럼 예민하고 여러모로 감성적이었지만 죽음에 맞서고자 한 야성과 터프함을 지닌 에밀리, 브론테 자매 중 가장 덜 알려진 작가로 외유내강 성격의 소유자 앤까지, 자유를 좇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던 세 자매의 삶을 무대에서 만나보길. ♡

3월 4일~6월 2일 ▶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1관 Ⓞ 100분  
₩ R석 7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인류에 공헌하고자 헌신해온 세정그룹

#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반세기

반세기 가까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기업이 있다. 언제나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건네온 부산 대표 향토 기업 세정그룹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세정그룹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발대식'



세정그룹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사진 오른쪽이 박순호 회장이다.



세정그룹이 지역사회를 위해 26년간 지속해온 이웃 돕기 성금·성품 전달식

## 패션 그룹 최초 나눔재단 설립

지난 3월 8일, 부산시청에서 세정그룹의 이웃 돕기 성금·성품 전달식이 있었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 사랑의 열매 최금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세정그룹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성금과 성품 총 3억 2,000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위기 가정 긴급 의료비, 취약 계층 월동 난방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며, 성품은 부산 지역 복지 기관을 통해 소외 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다. 이번 나눔은 많은 언론을 통해 애타투어 소개되기도 했는데, 보다 특별한 이유 때문이다. 세정그룹은 사랑의열매가 설립된 1998년 이듬해인 199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6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성금과 성품을 부산시에 기탁해온 것. 사랑의열매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만 84억 원 이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달식에서 “26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세정그룹에 부산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세정그룹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본사를 둔 종합 패션 기업이다. 인디안·브루노바피·올리비아로렌 등 잘 알려진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주얼리와 라이프스타일, 인테리어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다 남다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도 이름이 높다. 패션 기업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세정그룹의 나눔 반세기를 살펴보자.



###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나눔 동반자

세정그룹은 사랑의열매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기업으로 유명하다. 앞서 소개한 26년간의 이웃 돕기 성금·성품 기부뿐 아니라 나눔명문기업 가입, 박순호 회장과 임직원의 나눔리더 단체 동시 가입 등 사랑의열매와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나눔명문기업 가입 소식이다. 세정그룹은 2023년 1월 성금 1억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 50호에 이름을 올렸다. 세정그룹은 의류 기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지원, 소외 계층 명절 선물 지원 등 부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앞장서왔다. 2023년 8월, 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0만 원 기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 사랑의열매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진행했으며, 세정그룹은 5,000만 원을 쾌척하며 지역사회에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등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눔리더 단체 가입도 훈훈한 화제였다. 나눔명문 기업에 가입한 2023년 5월, 박순호 회장과 임원진 11명이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하며 기부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정그룹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오랫동안 나눔의 동반자를 자처해왔다.

### 창업주 나눔 철학, 든든한 밑바탕

세정그룹의 자체적인 사회 공헌 활동도 명성이 높다. 2011년 패션 기업 최초로 설립한 사회복지재단 세정나눔재단을 통해 장학금 사업, 재난 취약

계층 소방 설비 지원,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무료 독감 예방접종, 장애인 생계비 및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펼쳐왔다. 2022년에는 본사가 위치한 금정구와 '희망한춤' 사업 협약을 맺고,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추운 겨울을 홀로 지내는 홀몸 어르신과 청소년 가정 등 저소득층 100가구에 지원할 쌀·라면·양말 등을 포함한 생필품을 금정구에 전달했으며, 2월에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돌봄 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매니저가 도와주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에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하고 발대식을 열기도 했다.

세정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은 모두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으며, 그 역사도 길다. 이처럼 멈춤 없이 나눔을 지속해온 것은 '인류에 공헌'이라는 그룹의 나눔 가치를 몸소 실천해온 창업주 박순호 회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1호 회원으로, 개인 고액 모금 시대를 활짝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개인 연금 전액을 기부하는 은빛 연금기부에 최초로 가입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박순호 회장의 헌신은 '2023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동백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명실상부 우리 시대 최고의 나눔 인물로 인정받기도 했다. 세정그룹은 박순호 회장의 나눔 철학을 밑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나눔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며 다음 반세기를 준비하는 세정그룹에 응원을 보낸다. 🍀

“ 세정그룹은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지난 반세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돌봄 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매니저가 도와주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에 세정나눔재단은 1억 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했다.



위기 가정의 일상 회복을 돕는 세정나눔재단의 '희망한춤' 업무 협약식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장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언론은 물론 법령과 조례에도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 극복이란 말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별적 언어라고 발표했다. 장애는 단지 비장애인과와의 차이에 불과할 뿐 극복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봐야 할 때가 아닐까.



### 다른곳은 총 다섯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천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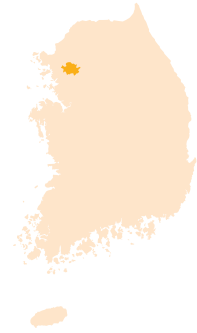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04  
페이지

# 전국 열매 이야기





명륜진사갈비·광고 모델  
이순재 동반 기부...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실버 1호 등극까지

# “나눔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됩니다”

광고주와 광고 모델의 아름다운 나눔 동행이 우리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기부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명륜진사갈비와 배우 이순재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올해 1월 진행된 (주)명륜당과 명륜진사갈비 전속 모델 배우 이순재의 동반 기부금 전달식



## 서울 아너 실버 1호 회원 탄생

기부금 전달식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실버 1호 회원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순재. 그는 2020년 1월, 명륜진사갈비 전속 모델로 전역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모델로 일부로 (주)명륜당과 동반 나눔에 나선 배우 이순재는 이번 기부로 서울 사랑의열매에 누적 기부금이 3억 원을 넘어서면서 아너 소사이어티 실버 1호 회원이라는 영예도 얻게 되었다.

배우 이순재는 “명륜진사갈비가 매년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기에 좋은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후배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달식에 자리를 함께한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명륜당과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명륜진사갈비 광고 모델 배우 이순재 님의 이번 기부는 우리 사회의 많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명륜당은 지난 2019년부터 임직원과 가맹점주가 함께하는 명륜나눔봉사단을 통해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 청년, 유기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후원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주)명륜당 강형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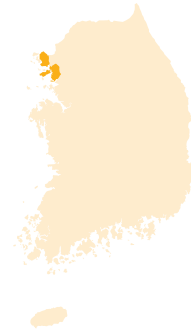
(주)명륜당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서울 사랑의열매와 긴밀한 나눔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 5년째 나눔 이어온 명륜진사갈비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 명예의 전당에서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2024년 전속 모델인 배우 이순재와 함께 저소득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금 2억 3,700여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주)명륜당은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이름이 높다. 2019년부터 임직원과 가맹점주가 함께하는 명륜나눔봉사단을 통해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후원, 취약 계층 가구 대상 식료품 후원, 미혼모 시설 물품 지원, 한부모 가족 교육 지원, 유기견 사료 나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사랑의열매와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벌써 5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전속 모델 배우 이순재와 함께 광고 모델로 기부해 국내 최초로 나눔명문기업과 아너 소사이어티 공동 가입식을 치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주)명륜당 강형준 대표는 “명륜진사갈비는 브랜드 론칭과 함께 많은 고객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면서 “함께 기부를 결심해주신 이순재 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 “나눔으로 사람과 가치를 잇습니다”

매년 단일 기관으로는 인천시 최대 규모의 사회 공헌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다.

글 이선희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실버카 지원 사업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인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세원 회장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영종리온지 개소식'

## 매년 인천시 최대 규모 성금 기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ESC 경영과 더불어 지역 상생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누적 성금만 188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년 인천시 단일 기관으로 최대 규모의 사회 공헌 성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공기관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 계층 돌봄 지원 •교통 약자 자립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취약 계층 돌봄 지원 사업은 소외 계층 연말 온기 나눔 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그리고 명절 지역 특산물 나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2만 4,850가정에서 1,202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기관 역시 45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취약 계층 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지난 설에도 인천 지역 소외 계층 600가구와 공항 인근 노인·아동 생활 복지시설 4개소에 지역 특산물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봉사 활동까지 진행했다. 이날 임직원

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어르신 식사 보조, 요양원 환경 정화 활동과 더불어 어르신들과 투호놀이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통 약자 자립 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교통 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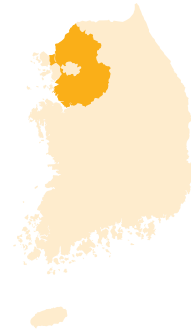
## 지속적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운지커뮤니티센터 지원 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모 사업, 지역 밀착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라운지커뮤니티센터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인천 석남지점, 영종지점, 대전지점, 서울지점 등 4개소가 운영 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 소통 공간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음 여행 사업'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 등 심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미술 심리 상담사를 양성·파견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복지시설 안전 더하기' 사업을 통해서도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안전 진단 및 긴급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주며 지역 문제를 해결 중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매장 건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굿월스토어'도 주목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기부 물품 분류 및 판매 역할을 맡기며 기업과 개인 기부 물품을 재판매하며 운영하는데, 현재 밀알인천점과 밀알영종점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6월 서구 지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단편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선순환 되는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





화재 피해 가구  
지원 위해 제품  
판매 수익금  
11.9% 기부하는  
(주)새움아트

# ‘새움아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

화재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된다.  
경기 사랑의열매와 연천소방서, 그리고 (주)새움아트  
업무 협약을 통해 전개하는 ‘새움아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다. 글이선희 사진경기사랑의열매

연천소방서에서 진행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업무 협약식



## 판매 수익 일부 기부

지난 2월 16일, 연천소방서에서 경기 사랑의열매와 (주)새움아트가 경기도 내 화재 피해 가구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새움아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주)새움아트 박영희 대표와 홍의선 연천소방서장, 그리고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움아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갑작스러운 화재 등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위기 극복의 희망을 나누고자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주)새움아트는 연천소방서와 협업해 개발한 ‘수총기(水銃器) 조립 키트 판매 수익금 11.9%를 기부하고, 경기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경기도 내 화재 피해 가구 및 취약 계층에 투명하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 이웃 위한 따뜻한 동행

이번 판매 수익금 기부는 연천소방서가 조립 키트 업체인 (주)새움아트에 수총기 키트 제작을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수총기는 조선 중기 학자 허원 선생이 중국에서 최초 도입한 수동 화재 진압 장비다. 연천소방서는 연천군 백학면에 잠든 허원 선생의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수총기 도입 300주년을 기념해 수총기 키트를 개발해 어린이 소방과 학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새움아트 박영희 대표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며 의미 있는 일에 더한다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에 먼저 기부를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새움아트 박영희 대표는 “미술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부도 재밌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제품 판매 수익금 11.9%를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은 “제품 판매 수익금의 11.9%를 기부하는 의미 있는 나눔을 약속해주신 (주)새움아트에 감사드립니다”며 “전해주신 성금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1 연천소방서는 수총기 도입 300주년을 기념해 교육용 수총기 키트를 제작했다.  
2 (주)새움아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관계자들

“수총기 도입 300주년을 맞아 키트 제작을 하면서 기부로 보다 의미를 더하고 싶었다.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주)새움아트 박영희 대표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나눔리더 가입한 의정부시 새말초등학교 1학년 심주용 학생

#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선뜻 용돈과 세뱃돈을 기부한 어린이의 이야기가 훈훈하다. 나눔의 새싹으로 싹싹 자라날 친구를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사랑의열매

심주용 군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진행된 나눔리더 가입식.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었다고 했다. 심주용 군의 기부금은 전액 아동복지시설 이삭의집으로 전달되어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 나눔의 뿌리가 되어준 아버지

심주용 군의 나눔 뒤에는 아버지 심규현 씨가 있었다. 그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받은 여러 도움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애써왔다. 먼저 2021년 가평군 1호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4년간 가평군청에 근무하며 따뜻한 기억에 보답하고자 가평군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아내 이현진 씨와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8년 첫돌을 맞은 첫째 심주용 군과 2020년 첫돌을 맞은 둘째 심재용 군을 위해 각각 100만 원을 기부하며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을 했다. 이렇게 형제의 성장에는 부모의 나눔이 언제나 함께해 왔다.

아버지 심규현 씨는 심주용 군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기부 관련 행사에는 꼭 동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심주용 군 나눔의 뿌리는 아버지 심규현 씨인 것이다. 그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생이 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에 앞서 기부와 나눔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가 커가면서 나눔을 가까이하고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나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들의 나눔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선한 영향력의 꽃씨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

“아들의 기부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나눔의 꽃씨가 되길 희망한다.”

-아버지이자 나눔리더 심규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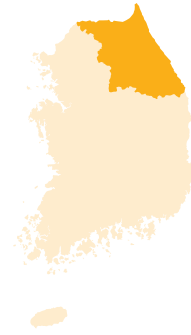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심주용 군(오른쪽)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기부 행사에 참석해왔다.

## 친구 위한 나눔의 마음

따뜻한 봄을 더욱 화사하게 밝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용돈과 세뱃돈 등을 모은 저금통을 기부한 어린이의 이야기다. 올해 3월 의정부시 새말초등학교에 입학한 심주용 군으로, 우리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동아이린이집 졸업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바로 심주용 군의 나눔리더 가입식이 진행되었기 때문. 심주용 군은 이날 행사를 통해 1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기부금은 심주용 군이 평소 용돈과 명절 세뱃돈 등을 저금통에 모아온 것에 아버지 심규현 씨가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자녀들 가족수당을 더해 마련했다. 아버지 심규현 씨는 아들 심주용 군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마음을 모으게 되





강원 15호  
나눔명문기업 탄생

#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서울에프엔비

식문화 웰빙 기업 서울에프엔비는 '함께 건강한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진정한 나눔명문기업다운 면모를 보였다. 글 이선희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원주시청

나눔명문기업 기부금 중 5,000만 원은 원주시에 기탁했다. (왼쪽부터) 기부금 전달식에 함께한 서울에프엔비 오태경 상무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서울에프엔비 오덕근 대표이사,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빌라 드 아모르와 기아오토큐 서원주서비스, 서울에프엔비의 기부금 전달식 모습

## 지역사회에 나눔을 전하는 향토 기업

서울에프엔비는 철저한 원칙주의, 아낌없는 첨단 설비 투자, 빈틈없는 품질관리,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정직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식문화 웰빙 기업이다. 푸드테크 전문 제조 토털 서비스를 통해 우유, 커피, 주스 등 180여 가지 제품을 제조하며 2005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 강원특별자치도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모든 기업은 사회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 중이다. 결식아동 희망 키트 선물 포장 봉사, 연탄 나눔 행사, 군부대 지원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 복지센터 기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

##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

지난해 12월 4일 서울에프엔비는 강원 사랑의열매에 15번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의미 있는 가입식을 진행했다. 기부금 1억 원은 서울에프엔비의 공장이 있는 횡성군과 원주시에 각각 5,000만 원을 기탁했다. 먼저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서 횡성군청에 5,000만 원을 전달했고, 이어 지난 3월 8일 원주시청에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 나눔명문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 서울에프엔비 오덕근 대표이사

서울에프엔비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울에프엔비의 원주시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 빌라 드 아모르 및 기아오토큐 서원주서비스와 함께 원주가톨릭 천사들의 집 기능 보강을 위해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것. 전달식에는 서울에프엔비 오덕근 대표이사사와 오태경 상무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이 함께하며 서울에프엔비의 한결같은 나눔에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







세종시 최초 형제 나눔리더 탄생...  
형 김범찬군,  
동생 김도율군

# “기부로 의미 있는 첫돌을 선물합니다”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일, 기부만큼 특별한 게 있을까. 더욱이 형제가 연이어 함께 한다면 그 의미는 보다 남다를 것이다.  
김범찬·도율 형제의 특별한 첫돌 이야기다.

글 이선희 사진 세종사랑의열매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진행된 둘째 김도율 군의 기부금 전달식에 함께한 김동민·이가영 부부 가족



“두 아이에게 의미 있는 첫 생일을 선물하고 싶어 돌잔치를 간소하게 진행하고 기부하게 되었다. 작은 기부로 시작된 첫 생일이 나비효과가 되어 범찬이와 도율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 믿는다.”

-아버지 김동민 씨

김범찬, 김도율 형제는 세종 사랑의열매 최초 나눔리더 형제다.



## 형제가 나란히 나눔리더

첫돌을 기념하는 일은 모든 부모의 최대 관심사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아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다. 그리고 여기,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부모의 사랑과 염원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첫 번째 생일 때 선물한 이들이 있다. 주인공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김동민·이가영 부부다. 두 사람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첫돌을 기념하기 위해 이웃들을 위한 기부를 선택했다. 이로써 부부의 첫째 아들 김범찬 군과 둘째 아들 김도율 군은 세종시 최초이자 최연소 나눔리더 형제가 되었다.

먼저 만 1세로 세종시 최연소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린 형 김범찬 군의 기부는 지난해 있었다. 아버지 김동민 씨는 “첫 생일을 맞은 범찬이가 건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돌잔치를 하지 않은 대신 기부를 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면서, 세종 사랑의열매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생활이 어려운 친구를 선정, 전액 지원되었다. 김범찬 군의 돌잔치 기부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돌잔치 문화가 간소화되는 추세 속에 잔치 비용이 기부

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전파되도록 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부는 둘째가 태어난다면 똑같이 돌잔치 대신 기부를 통해 나눔리더에 가입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 첫돌 선물은 나눔 DNA

김동민·이가영 부부의 나눔 약속은 1년 뒤 지켜졌다. 올해 3월 첫째 김범찬 군에 이어 둘째 김도율 군의 나눔리더 가입과 함께 300만 원을 기부한 것. 형 김범찬 군은 세종시 나눔리더 126호, 동생 김도율 군은 137호다. 김도율 군의 성금은 청소년 가정, 미혼모 가정, 백혈병 투병 아동 세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형제의 어머니 이가영 씨는 “범찬이와 도율이 나눔을 실천하는 첫돌 나눔리더 형제가 되어 영광”이라면, “듬직한 남편과 첫돌 나눔리더 형제가 있어 엄마로서 더 든든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 사랑의열매 이희정 사무처장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돌잔치를 나눔으로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범찬 군과 도율 군의 돌잔치 기부가 사랑의열매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전국 3327호(부산 346호)

**이민현 (주)중앙엔지니어링 대표**  
"더부러·다가치·가치."



전국 3338호(경기 329호)

**이성민 대성기계공업(주) 이사회위원장**  
"기부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자, 내 마음의 행복입니다."



전국 3346호(광주 168호)

**이정오 정상기업(주) 대표이사**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며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 3347호(광주 169호)

**김철남 정관장 화정점·3H지압침대 금호센터 대표**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3365호(중앙 377호)

**김명희 상림산업개발주식회사 회장**  
"나눔은 행복이고, 실천은 사랑입니다."



전국 3367호(중앙 378호)

**강태현 하이브(그룹 TXT(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아티스트**  
"저의 나눔이 꿈나무 친구들이 진로를 정하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370호(서울 415호)

**유은실 허원미디어 대표·서울36의원 대표원장**  
"나눔이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통과 의례."



전국 3371호(서울 416호)

**오태석 학교법인 강서학원 이사장**  
"나눔이란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웃고, 기뻐하고, 울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374호(인천 178호)

**고정현 고헤어 대표**  
"꿈의 씨앗이 나눔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전국 3381호(광주 170호)

**김보곤 디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앞으로도 나눔의 의미를 알리고, 나눔 실천에 모범이 되는 기업과 대표가 되겠습니다."



전국 3382호(광주 171호)

**배문자 (주)뉴그린코리아 대표이사**  
"광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전국 3383호(광주 172호)

**주수영 (주)성울이앤지 대표이사**  
"아너 가입을 통해 앞으로 더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전국 3384호(광주 173호)

**김양선 (주)성일이노텍 부사장**  
"광주 사랑의열매와 나눔의 동반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전국 3385호(광주 174호)

**임순택 (주)메디시스 대표이사**  
"20년 동안 고민했던 아너 소사이어티! 60세 이전에 가입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국 3386호(광주 175호)

**유구현 (주)한국쓰리축 대표이사**  
"최고의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김상복**  
경기 **강정호 (주)양대이앤지 대표**  
강원 **정종화 설악이앤씨(주) 대표이사**



중앙회

상림산업개발(주) 김명회 회장,  
아너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상림산업개발(주) 김명회 회장이 사랑의열매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명회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병마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주변의 도움으로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후, 작은 선행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김명회 회장은 서초행복산악회 회장, (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지회 자문위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초지구 운영위원으로도 재임 중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서초행복산악회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아 서초행복봉사단을 결성하고,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깨끗한나라(주), 2억 4,000만 원 상당  
여성용품·기저귀 기부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주)가 국제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과 기저귀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여성 위생용품 ‘순수한면’ 30만 개와 기저귀 ‘보숨이 원더바이워드’ 13만 개로, 사랑의열매와 굿네이버스를 통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깨끗한나라(주)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해 생활용품 약 13만 개를 긴급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기저귀 100만 개를 기부하는 등 사랑의열매와 연계해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깨끗한나라(주) 최성 사업부장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나라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희망2024학교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서울 사랑의열매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한 희망2024학교나눔캠페인 성금 2억 2,500만 원을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전달했다. 성금은 서울시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특별히, 이번 학교나눔캠페인은 홍보대사 카피추와 ‘나눔송 챌린지’를 함께 하며 의미를 더했다.

연합자산관리(주),  
여성 노숙인 자립  
지원



연합자산관리(주)(대표 이상돈)가 여성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열린여성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쓸 예정이다. 이상돈 대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여성 노숙인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 함께돌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발대식 개최



지난 2월 29일 부산 사랑의열매가 ‘부산, 함께돌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발대식을 진행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 보조 및 동행 서비스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세정그룹(회장 박순호),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함께한다.

영웅시대WithHero  
부산남수해,  
착한팬클럽 1호 가입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인 ‘영웅시대 WithHero 부산남수해(방장 초설)가 부산 최초의 팬클럽 나눔리더스클럽에 이어 부산 착한팬클럽 1호로 가입했다. 성금은 임영웅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으로 등극한 지 4주년이 되는 3월 14일을 맞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으며,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쓸 예정이다.



대구

2024년 신청 사업  
수행비 3억  
8,000여만 원 배분



대구 사랑의열매가 2024년 신청 사업 수행 기관 26개소에 3억 8,000여만 원의 사업 수행비를 전달하고, 사업 수행 교육을 진행했다. 수행 기관들은 대구 지역의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심리 및 정서 치료, 직업 재활,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성금 20억  
7,000만 원 쾌척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회장 김상태)가 대구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20억 7,000만 원을 쾌척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는 매년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태 회장은 “모금에 참여한 상공의원과 지역 기업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인천

고헤어 고정현  
대표, 인천 178호  
아너 회원 가입



고헤어 고정현 대표가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인천 178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고헤어는 미용 전문 기업으로 헤어 살롱, 헤어 아카데미, 자연 유래 코스메틱 등을 운영하며 미용 토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고정현 대표는 “1988년 인천의 작은 매장에서 소박하게 보듬은 꿈의 씨앗의 결실을 나눔으로 맺으려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 이웃 돕기  
성금 기탁



인천 40호 나눔명문기업인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대표이사 김기열)이 이웃사랑 성금 3,9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인천 시 관내 취약 계층 식품 지원 및 중구 지역의 장학 사업, 어르신 돌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기열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대한석유협회,  
광주 지역 이웃에  
난방유 지원



대한석유협회(회장 박주선)가 광주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난방유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석유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석유협회는 3년째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박주선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헤민서  
금호장례식장, 광주  
15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헤민서 금호장례식장(이사장 구제길)이 광주 15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구제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너 회원이기도 한 구제길 이사장은 작년 말 기준 35년간 40억 원을 기부했으며, 2023년 10월 토지 7,200평을 기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대전 지역 이웃  
위한 성금 전달



매년 기부와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원장 심은보)이 대전 관내 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 성금 1,980만 원을 전달했다. 심은보 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밝은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디솔루션,  
착한일터 가입으로  
나눔 실천



알디솔루션(대표 손일) 임직원들이 대전 착한일터에 가입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알디솔루션은 2020년 자원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친환경 기업으로, 자동차·스마트폰·노트북 등의 충전 배터리를 회수해 원천 기술로 재활용한다. 손일 대표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울산

고려아연(주),  
울주군에 성금  
5억 원 전달



고려아연(주)(회장 최창근)가 울주군에 지역 복지 현안 사업 지원 성금 5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사업비,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고려아연(주) 이준용 온산제련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유백,  
울산 12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종합 건설업체 (주)유백(대표 김형신)이 울산 1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김형신 대표는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주)유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삼영전자공업(주),  
경기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 등극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제조업체 삼영전자공업(주)(회장 변동준)가 2023년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후 누적 기부금 3억 원을 달성하며 실버 회원으로 등극했다. 삼영전자공업(주)의 기부액은 총 3억 2,000만 원으로, 성남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다. 변동준 회장은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롯데케미칼(주),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장학금  
후원



롯데케미칼(주)가 의왕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3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장학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해 조성했다. 롯데케미칼(주) 문정식 상무(HR부문장)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임영웅 팬클럽  
'서울동북부  
영웅시대', 성금  
460만 원 기탁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서울동북부 영웅시대(회장 천영인)가 이웃사랑 성금 4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임영웅이 TV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진(1등)으로 당선된 지 4주년이 되는 3월 14일을 기념해 서울동북부 영웅시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포천 지역 장애인의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양누리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 운동  
성금 전달



지난 3월 15일 고양누리새마을금고(이사장 김재진)가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마련한 성금 1,243만여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고양누리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매년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전개하고, 임직원들과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쌀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하고 있다.

강원

(사)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 이건설 회장,  
나눔리더 가입



지난 2월 23일 (사)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이건설 회장이 강원 93호 나눔리더로 가입해 강원 사랑의열매가 인증패를 전달했다. 2024년 강원 사랑의열매 첫 번째 나눔리더가 된 이건설 회장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2024년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으로 함께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산호전기조명  
박종태 대표,  
아너 가입으로  
나눔 동참



산호전기조명 박종태 대표가 강원 108호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22일에 열린 가입식에는 박종태 대표와 김홍규 강릉시장,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김동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태 대표는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이웃을 돕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

(주)LG화학  
청주공장,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복 지원



(주)LG화학 청주공장(주재 임원 최종완 상무)이 청주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교복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임직원의 참여로 조성되는 사회 공헌 기금인 트윈엔젤기금과 공장 내 자판기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해 마련했으며, 교복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50여 명에게 쿠폰으로 전달했다.

2024년 ESG  
환경 개선 사업  
설명회 개최



충북 사랑의열매는 도내 비영리 기관 및 단체 12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ESG 환경 개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SK하이닉스 청주 스마트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라 구성된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설명회에서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배분 신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교육했다.

충남

서산장학재단,  
장학생 323명에  
3억 490만 원 후원



서산장학재단(공동후원회장 성우중·성석중)이 서산 지역 학생 109명에게 1억 1,530만 원, 태안 지역 학생 214명에게 1억 8,9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공동후원회장인 성우중·성석중 형제는 “재단은 언제나 장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바라는 인재로 커달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차량  
20대 지원



충남 사랑의열매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차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차량 20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차량은 승합차 9대와 어린이 통학 차량 11대로, 시설 이용 아동들의 귀가 지원, 노인 세대 병의원 방문 지원, 폭력 피해 여성 방문 상담 등을 위해 운행된다.

전북

iFA전북사업단  
김성광 대표,  
전북 103호  
아너 가입



iFA전북사업단 김성광 대표가 2024년 새해 첫 전북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성광 대표는 “전북 아너 회원들의 지역 내 나눔 활동을 보고 저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성금은 도내 취약 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꿈  
성장 지원 사업  
수행 안내 교육  
진행



전북 사랑의열매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및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꿈 성장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투명한 배분금 사용을 위해 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전라북도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

(주)태화산업,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주)태화산업(대표이사 차준오)이 전남 1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차준오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지역과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항상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땅끝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 기탁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배다혜)가 성금 117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학용품과 장난감, 의류 등의 물품을 준비해 진행한 바자회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배다혜 센터장은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그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주)문경레저타운,  
문경시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문경레저타운(대표이사 정광호)이 경북 14호이자 문경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2003년에 설립해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를 운영하는 (주)문경레저타운은 매년 사회 공헌 활동으로 문경시 장학금 및 이웃 돕기 성금 기탁, 폐광 지역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정광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자원봉사센터에  
이동 세탁 차량 전달



경북 사랑의열매가 군위군자원봉사센터에 이동 세탁 차량을 전달했다. 3.5톤 트럭에 25kg 용적의 세탁기 4대를 설치한 이동 세탁 차량은 군위군자원봉사센터가 군위군 취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대형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 장비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경남

더큰사랑의원  
박태환 원장,  
거제 1호 아너 회원 가입



더큰사랑의원 박태환 원장이 경남 사랑의열매 아너 회원으로 가입해 지난 3월 5일 거제 시청에서 가입식을 진행했다. 박태환 원장은 “제가 거제시 1호 아너 소사이어터 가입자인 것에 놀랐다”며 “앞으로 거제에서 더 많은 시민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CTR,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지역  
사랑 실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TR(대표이사 윤용호·이호영)가 경남 20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해 경남 사랑의열매에서 현판을 전달했다. 윤용호 대표이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주)카카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 지원  
성금 기탁



(주)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가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 지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해당 사업은 (주)카카오가 도민 참여형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 대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주)카카오가 사업을 위해 기탁한 누적 기부금은 11억 원에 달한다.

제주삼다수  
나눔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임대표 강호진)가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 제주삼다수 나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주삼다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2024년엔 페트병 수거 시범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세종맘카페,  
성금 500만 원 전달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지부장 이일준)와 세종맘카페(대표 정연숙)가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세종시의 저소득 가정 아동 및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일준 지부장과 정연숙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기획 사업  
4,000만 원 배분



세종 사랑의열매가 2024년 기획 사업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보장위원회(위원장 서동민)에 지원금 4,000만 원을 배분했다.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세종 지역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기반에 적극 개입해 복지 문제 현안을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 이상한 이상해씨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